

## 학습자 사전에서의 유의어 선정과 기술 방법에 대한 연구-연세 현대한국어사전을 중심으로\*

조 민 정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HK사업단)

### <ABSTRACT>

Jo Min-Jeong, 2010. A Study for discrimination and description method for Synonym in Korean Language, *Korean Semantics*, 33.

This study aims to show discrimination and description methods of Korean synonym, especially based on 『Yonsei Modern Korean Dictionary』. Synonymy is widely used to enrich learner's vocabularies in Language Teaching. For providing materials in language teaching, first of all this study shows Korean synonym are divided into three which are based on the etymology, and those classifications aren't explanatory of discrimination of synonyms and enriching vocabularies to language learners. Insead of this study classifies Korean synonym four types based on their language properties. These classifications are explanatory of discrimination of Korean synonym and moreover those are closely related to description of Korean synonym. Secondly, this study aims to discriminate between tests of discrimination synonym based on functional burden. According to my observation, those test are used differently according to category. Lastly this study shows the description of Korean synonym based on their property. For example, nouns are described by using signposts or modifier or predicates. Verbs are described by using case frame or the properties of their

- 
- 1) 이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KRF2009-361-A00027)에 의해 이루어졌음.
  - 2) 이 논문은 제27차 한국어의미학회 전국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 보완한 것임. 이 논문을 심사해 주신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논문에 대해 많은 질문과 토론을 해 준 언어정보연구원의 연구원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전합니다.

arguments. And adverbs are described by using modifier or conjunctive ending etc.

핵심어: 유의어(synonym), 변별(discrimination), 기술(description), 교체 검증(substitution test), 결합 검증(co-occur test), 반의어 검증(opposite test), 배열 검증(arrangement test),

## 1. 머리말

### 1.1. 논문의 목적

일반인들은 언어학적인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가’와 ‘외갓집’, ‘외가댁’이 직관적으로 비슷한 말 즉 유의어인 것을 안다. 반면 ‘외가’와 ‘처가’, ‘친정’은 서로 관련되었으나 비슷한 말이 아님을 안다. 그렇다면 언어학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위와 같은 어휘가 비슷한 말인지 아닌지를 아는가? 그리고 유의어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다면, 그러한 기준은 항상 모든 단어에 적용할 수 있는가? 아니면 많은 단어에 적용될 수 있는 기준과 그렇지 않은 것들이 어떠한 위계를 가지는가?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본고는 연세 현대한국어사전에서 유의어를 판별할 수 있는 검증법을 제시하고, 그러한 검증법에 의해 결정된 유의어의 의미 차이를 기술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연세 현대한국어사전』(준비중)은 학습자 사전으로, 학습자 사전이란 학습자가 어휘 간의 차이를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학습자의 눈높이에 맞는 기술 즉, 학습자에게 적합한 풀이방식을 사용한다. 그리고 학습자 사전으로써 유의어 사전의 목적은 학습자가 알고 있는 어휘 말고 그보다 더 적합한 다른 어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자신이 의도하는 내용을 가장 적절히 표현해 주는 어휘를 쉽게 고를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이 때 등장하는 것이 유의어의 범위 문제이다. 유의어의 범위는 학습자 사전이란 성격에 의해 정해지기도 하고, ‘유의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정해지기도 한다. 유의어의 개념 및 범위는 1.2.에서 자세히 논의하기로 한다.

앞선 연구에서 유의어의 변별을 위해 사용한 방법으로는 교체, 결합, 반의어 및 배열 검증법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은 모든 품사의 유의어들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위의 방법에 의해 구분된 유의어를 사전에서 기술할 때도 모든 품사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것을 토대로, 본고에서는 유의어 변별 검증법을 적용 범위가 넓은 것부터 순서대로 제시하고, 이러한 검증법에 의해 변별된 유의어 기술 방법이 품사에 따라 다르고, 적용 범위 역시 다름을 예를 통해 제시하기로 한다.

## 1.2. 유의어 개념 및 연구 범위

영어의 ‘synonym’에 대하여 ‘동의어’라 하기도 하고, ‘유의어’라 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모든 문맥에서 교체 가능한 완전한 동의어란 없다는 전제 하에 ‘유의어’는 보통 ‘부분동의어’를 지칭한다. 그러나 부분동의어 역시 그것이 맺는 관계는 동일하지 않다. 모든 문맥에서 교체될 수 있는 경우(‘뼈아프다’와 ‘뼈저리다’ 쌍)와 그렇지 않은 경우(‘아프다’와 ‘뼈아프다’ 쌍)가 있다. 교체되는 맥락이 어떠한든 두 개 이상의 어휘가 유의 관계를 형성하여 ‘유의어’가 될 때, 그것들은 동일 문맥에서 서로 교체될 수 있어야 한다 (1a).

‘유의어’와 관련된 기존의 논의에서 ‘유의어’는 동일한 지시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기도 했고, 유사한 개념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기도 했다. 본고는 김광혜(1987)의 입장<sup>3)</sup>과 달리 ‘유의어’를 동일한 지시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개념을 가리키는 것에 한정하였다 (1b). 동일한 지시물을 가리키지만 동일한 개념을 표현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 ‘친정, 외가, 처가’가 있다. ‘친정’은 ‘결혼한 여자의 본집(표준)’이고, ‘외가’는 ‘어머니의 친정(표준)’이고, ‘처가’는 ‘아내의 본집(표준)’이다.<sup>4)</sup> 이들은 동일한 지시물을 가리키지만

3) 김광혜(1987:187)는 “유의어 사전에 (중략) 엄밀한 의미에서의 유의 관계보다는 좀더 폭넓은 의미에서 유의 관계를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즉, 기본 의미 사이의 유사성의 수준을 넘어서서, 한 지시 대상(referent)을 대표할 수 있는 여러 어휘뿐만 아니라 특별한 상황이나 문맥에서 교체되어 쓰이는 것까지 가급적 많은 수효의 어휘가 발굴되어 수용되는 일이 필요하다.”고 한다.(밑줄은 필자가) 이때 한 지시 대상(referent)을 대표한다는 것은 개념의 동일성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지시물의 동일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본고에서 인용한 어휘와 용례는 기본적으로 <연세 현대한국어사전>에서 가져온 것이다. 이

동일한 개념을 가리킨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어휘들의 뜻풀이만 보더라도, 우리는 유의성보다는 차이점을 먼저 인식한다.

유사한 개념과 관련하여 유현경 외(2002)는 ‘의미적으로뿐 아니라 형태적, 통사적, 화용적 측면에서 공통적인 부분을 지니고 있어서 학습 과정에서 혼동의 염려가 있는 일련의 어휘들의 관계’를 유사 관계 어휘(the extended notion of synonym)’으로 규정하였다(밑줄은 필자).<sup>5)</sup> 위의 밑줄 친 ‘공통적인 부분을 지니고 있다’는 유사한 개념에 대한 설명일 텐데, 이러한 정의는 ‘유의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수의 공통된 부분과 다른 한 부분을 가지는 것’인 반의어에서도 공통된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의로는 ‘유의어’와 ‘반의어’를 구분하기 어렵다. 따라서 유의어라고 할 때 그것은 어휘의 모든 조건에서 유사한 것이 아니라 특정 조건에서는 유사하나 다른 조건에서는 차이점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 때의 차이점이란 Nida, E.A.(1975)가 구분한 의미성분 중 보조성분에 대응되고, Leech, G.(1974)의 연상의미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sup>6)</sup> 그리고 이러한 차이점은 아래 (1c)에서 보듯이 어휘, 문장, 담화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본고는 아래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을 ‘유의어’로 본다.

- (1) a. 동일 문맥에서 교체될 수 있을 것.<sup>7)</sup>
- b. 의미 즉 개념적 의미가 유사할 것.
- c. 내포 의미, 형태, 결합 관계, 사용역, 사용범위 등에서 차이를 가질 것.

이 세 가지 속성을 가지는 것을 유의어로 보는데, (1a)도 단어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다르다. 즉 ‘뼈아프다, 뼈저리다’처럼 전체 문맥에서 교체되는 유형과

하 <연세 현대>로 표시하며, 그 밖의 자료에서 가져온 경우 출처를 따로 밝힌다. 예컨대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져온 경우 <표준>으로 표시한다.

- 5) 논자에 따라 유의어는 중첩 관계나 포함 관계에 의해 형성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본고는 ‘중첩’을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이것은 포함 관계까지 포괄한다고 본다.
- 6) Leech, G.(1974:10-27)은 의미 규정을 위해 의미를 7가지로 나눈 바 있다. 이 때 연상의미는 다시 ‘내포의미, 문체의미, 감정의미, 반영의미, 연어의미’로 구분하였다.
- 7) 동일 문맥이란 유의 관계를 이루는 어휘들이 단의어일 경우 문제가 되지 않으나, 다의어일 경우 좀더 한정되어야 한다. 이때는 의미(sense)가 동일한 그러한 상황에서 교체되는 것을 의미한다.

‘아프다’와 ‘뼈아프다’와 같이 일부의 문맥에서 교체되는 유형이 있다. 교체에 대한 것은 교체 검증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위의 속성을 만족시키는 유의어는 다양한데, 본고는 그러한 것을 모두 다루지 않고 한정된 범위만을 다루었다. 먼저 ‘상위어/하위어’ 관계에 의해 만들어진 어휘 역시 유의어의 범위(표제항)에서 제외한다. 아래 (2)의 밑줄 친 ‘그 과자’는 앞의 문장에 나온 ‘비스킷’을 되가리킨다. 이때 상위어인 ‘과자’와 하위어인 ‘비스킷’은 동일한 지시물을 가리키는데, 동일한 지시물을 가리키는 어휘들은 유의어의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기준에 따라 ‘상위어/하위어’ 관계를 이루는 어휘들도 연구 범위에서 제외한다.

- (2) 권한 과자가 비스킷이면 받는 사람은, “이것 참……고맙습니다. 저는 **비스킷**을 참 좋아합니다.”라고 말하면서 그 과자를 받는다.

또한 본고는 은어도 표제항에서 제외하였다. 은어는 본래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집단에서 은어를 사용하는 집단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그것은 집단 내에서만 통한다는 은밀성을 지닌다.

- (3) a. “암마, 거기서 뭘 해? 난 또 **깔치하고/애인하고** 날아버린 줄 알았잖아?”  
<이문열, 변경>  
b. 제대가 며칠 남지 않은 **갈참들은/고참들은** 내무반 한쪽에서 날짜만을 끊고 있었다.  
<표준>

위 (3a, b)에서 ‘깔치, 갈참’은 ‘애인, 고참’과 개념적 의미가 유사하고, 교체될 수 있으며, 사용역·사용범위 등에서 차이를 보여 전형적인 유의어 쌍에 속한다. (3a)는 문학 작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반면, (3b)는 상대적으로 통용 범위가 넓지 않다. 은어의 통용 범위는 특정 집단과 은밀성이라는 은어의 특성과 관련되는데, 통용 범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이것 역시 유의어의 표제항에서 제외하였다.<sup>8)</sup> 이러한 기준에 의해 유의

8) 전문어는 유의어의 조건인 ‘동일 문맥에서 교체될 것’을 따르지 않지만, 유의어에 포함하였다. 자세한 것은 2.1.4.를 참고할 것.

어 사전의 표제항에서 제외된 것으로 방언, 북한말 그리고 이전말이 있다.

문금현(2004)에서는 ‘본딧말 : 준말’ 관계도 유의어에 포함시켰으나, 본고는 본딧말과 준말은 개념상의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보아 유의어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지금까지 기술한 것을 토대로 유의어 사전의 표제항에서 제외한 어휘들을 유형별로 보이면 아래와 같다.

- (4) a. 본딧말/준말 유형: 그렇지마는/그렇지만, 살포시/살풋 ...
- b. 표준어/비표준어 유형: 단무지/다꾸양, 옥수수/옥시기 ...
- c. 은어 유형: 고참/갈참, 형사/개코, 담배/간뎡이, 산삼/삼 ...
- d. 상위어와 하위어 관계: 과자 ≧비스킷 vs 쿠키, 반지 ≧가락지 ...
- e. ‘-하다/-되다, -하다/-시키다, -거리다/-이다/-대다’ ...
- f. ‘-하다/-스럽다, -롭다/-스럽다, -하다/-롭다’ ...

## 2. 유의어의 유형

유의어의 유형은 유의관계를 이루는 어휘의 기원에 따라 혹은 음운이나 형태, 문법적인 특성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유의 관계를 이루는 어휘가 고유어인가 한자어인가 외래어인가에 따른 구분이 가능하다.<sup>9)</sup>

남성우(1972), 이용주(1972), 천시권·김종택(1971)은 국어 유의어를 단어의 기원에 따라 이중구조(고유어 대 고유어, 고유어 대 한자어, 고유어 대 외래어, 한자어 대 한자어, 한자어 대 외래어, 외래어 대 외래어)와 삼중구조(고유어 대 한자어 대 외래어)로 나눈 바 있다. 아래 (5)가 바로 어휘의 기원에 따라 유의어를 분류한 것이다.

- (5) a. 겨루기/맞서기, 구두쇠/짚돌이, 작은마누라/작은계집(/소실/첩); 장난감/완구, 이어달리기/계주, 등산길/등산로; 댓글/덧글/리플, 뽀박질/달리기/조깅/런닝, 알레르기/알러지 ...
- b. 발행인/발행자, 도매가격/도매금/도매가, 포도주, 와인 ...
- c. 알러지/알레르기, 커피/까페, 조깅/런닝, 나트륨/나트륨 ...

9) 김진식(1991)에서 재인용.

- d. 이어달리기/계주/릴레이, 문등병/나병/대풍창/한센병, 고뿔/감기/인플루엔자  
...

위 (5a)는 ‘고유어 대 고유어, 고유어 대 한자어, 고유어 대 외래어 쌍’이고, (5b)는 ‘한자어 대 한자어 쌍’이며, (5c)는 ‘외래어 대 외래어 쌍’이다. 마지막으로 (5d)는 ‘고유어 대 한자어 그리고 외래어’가 유의어를 이루고 있다.

(5)에서 보듯이, 어종에 따른 유의어 유형 분류는 ‘작은마누라/작은계집/소실/철’, ‘등산길/등산로’와 ‘댓글/덧글/리플’ 등과 같은 어휘들을 어느 유형으로 분류할 것인가 판단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알레르기, 알리지’처럼 유의관계를 이루는 어휘의 기원이 불분명한 경우, 처리가 어렵다는 점, 마지막으로 어종과 관련된 정보는 유의어 간의 차이점을 알고 싶은 학습자에게 그다지 유용하지 않은 정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이유로 본고는 어종에 따른 유의어 유형보다는 오히려 유의어를 이루는 어휘 간의 언어적 특성이 그들의 차이를 기술하는 데 유용하다는 판단에 따라 언어적 특성에 따른 유의어 유형 분류와 그렇게 분류된 유의어의 의미 차이를 주로 다룰 것이다.

## 2.1. 언어적 특성에 따른 유의어 유형

### 2.1.1. 음운론적 유의어

조남호(2001)에서 한국어 어휘의 특징 중 하나는 ‘한국어는 자음과 모음이 바뀌어 뜻이 약간씩 다른 말이 많다’고 한 바 있다. 즉 한국어는 자음과 모음의 교체를 통해 어감의 차이가 발달한 언어이며, 자음과 모음의 교체로 만들어진 유의어는 아래 (6)와 같은 것들이 있다.

- (6) 따듯하다/따뜻하다, 째깍하다/찰찰하다, 까맣다/꺼멩다, 졸졸/줄줄 ...

음운교체에 의해 생성된 유의어의 의미 차이는 크지 않다. 예컨대 (6)의

‘따뜻하다’는 ‘① 덥지 않을 정도로 온도가 알맞게 높다. ② 감정, 태도, 분위기 따위가 정답고 포근하다.(표준)’의 의미를 가지고, ‘따뜻하다’는 ‘① 덥지 않을 정도로 온도가 알맞게 높다. ② 감정, 태도, 분위기 따위가 정답고 포근하다.(표준)’의 의미를 가진다.<sup>10)</sup> 뜻풀이가 동일한 이 두 어휘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만일 할 수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먼저 이 두 어휘의 의미 기술만으로 그 차이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두 어휘의 결합 및 분포에서의 차이를 통해 둘의 차이를 기술하는 것이 유의미할 것이다.

- (7) a. 아침저녁으로는 **따듯한/따뜻한** 아랫목이 그리워질 때이다.
- b. **따듯한/따뜻한** 가슴을 지닌 사람들과의 만남은 행복한 일이다.
- (8) a. **따듯한** 기운/느낌/마음/목소리/손길/온기/입김/환영 (총 55회)
- b. **따뜻한** 가슴/겨울/격려/꽃/공기/날씨/남자/동포애/마음/말/물/봄기운/사랑/이야기/정/햇살/환영 (총 500회)

위 (8)에서 보듯이 두 어휘는 출현한 말뭉치 용례와 결합 관계에서 차이를 보인다. ‘따뜻한’은 ‘따듯한’보다 더 높은 빈도로 (약 10배) 출현한다<sup>11)</sup>. 뿐만 아니라 ‘따뜻한’은 구체명사, 추상명사 모두와 결합하는 반면 ‘따듯한’은 표준 사전에서의 풀이와 다름을 위 (8a)에서 볼 수 있다. 음운 차이로 만들어진 유의어의 차이는 그러한 어휘들의 분포와 결합 관계에 의해 기술할 수 있다.

### 2.1.2. 형태론적 유의어

형태론적 유의어는 하나의 어기에 새로운 어기 혹은 접사를 결합시키거나 어휘의 음절을 도치시키거나 혹은 음절을 단축시키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형태론적 유의어는 먼저 파생이나 합성의 조어 방법에 의해 만들어진 다. 아래의 예(9a)가 바로 그러한 예들이다. ‘거적때기’는 ‘거적’에 ‘-때기’라는 접미사가 결합되어 만들어졌으며, ‘얼굴값’과 ‘꿀값’은 ‘얼굴, 꿀’이라는

10)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따듯하다’는 ‘따뜻하다’보다 어린 느낌을 준다.”만이 참고로 기술되어 있다.

11) 빈도는 연세말뭉치에서 ‘따듯한/따뜻한’의 활용폴로만 검색했을 때의 빈도를 나타낸다.

어기에 ‘값’이라는 어기가 결합된 것이다. 그리고 기존의 논의에서 ‘철썩거리다/철썩대다, 찰랑거리다/찰랑대다’ 등은 ‘철썩, 찰랑’이라는 부사성 어기에 ‘-거리다/-대다’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것을 형태론적 유의어에 포함시켰으나 본고는 이것들은 유의어에 포함시키지 않았다(1.2 연구의 범위 참조).

- (9) a. 거적/거적때기, 코/코빼기, 얼굴값/꼴값, 어리석은 사람/푼수대기, 부엌일을 하는 사람/부엌대기, 상판/상판대기, 상가/상가집, 외가/외가집, 처가/처가집<sup>12)</sup> ...
- b. 흑간/간흑, 경외/외경, 관련/연관, 대면/면대, 사사건건/건건사사 ...
- c. 자그마하다/자그맣다, 이렇하다/이렇다, 간단명료하다/간명하다, 내외간/내외지간, 옷매무새/매무새, 목불인견/불인견, 문하생/문생, 불쏘시개/쏘시개, 선입관님/선입관/선입견, 실내음악/실내악, 약재료/약재, 영업주/업주, 물여울/여울, 영업장소/영업소 ...

또한 (9b)의 ‘或間/間或, 敬畏/畏敬, 關聯/聯關’ 등은 어휘의 앞 음절과 뒤 음절의 도치에 의해 만들어진 유형이며, (9c)의 ‘자그마하다/자그맣다’와 ‘불쏘시개/쏘시개’ 등은 어휘의 음절을 축약시켜 만든 유의어이다. 그러나 (9a)와 달리 (9b, c)의 유의어는 실제 거의 모든 문맥에서 교체되어 쓰이고, 유의어 간의 의미 차이가 크지 않거나 미미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본고는 형태론적 유의어 중 파생이나 합성에 의해 만들어진 (9a) 유형만을 표제항에 포함시키고, (9b, c) 유형은 제외하였다.

(9a) 같은 형태론적 유의어를 변별하기 위한 방식이 무엇이라고 규칙화시키기는 어렵다. 그러나 ‘-때기, -빼기, -대기’와 같은 접미사로 만들어진 어휘는 상대에 대한 담화 참여자의 태도를 드러내는데, 담화 참여자의 태도는 화용적 유의어 부분에서 자세히 다룬다.

### 2.1.3. 문법적 유의어

---

12) (9a)의 밑줄 친 ‘어리석은 사람, 부엌일을 하는 사람’은 『연세 현대한국어사전』의 표제항에는 없다.

‘옹색하다/궁색하다/군색하다’ 유형은<sup>13)</sup> 의미가 유사하고, 모두 동일한 격들을 가지며, 주어의 **논향이 유사**하여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것이고, ‘생각나다/떠오르다’ 유형은 의미와 논향이 유사하나 **격틀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본고는 유현경·강현화(2003)와 달리 ‘격틀과 의미는 유사하나 결합하는 논향에서 차이를 보이는 유형과 의미와 논향은 유사하나 격틀에서 차이를 보이는 유형’을 모두 ‘문법적 유의어’라 한다.

그런데 ‘깍데기/깍질, 입/주둥이/아가리/부리’와 같은 유형은 의미성분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엄밀하게 문법적 유의어라기보다는 의미적 유의어로 볼 수 있는 것들이다. 아래 (10)의

(10)a. 깍데기/깍질

- b. 굴, 달걀, 알, 조개, 딱딱한, **빈 깍데기**; \*깍데기째 먹다; \*깍데기를 깎다
- c. 감자, 과일, 새우, 양파, 두꺼운, 얇은 **깍질**; \*?빈 **깍질**; 깍질째 먹다; 깍질을 깎다

‘깍데기/깍질’은 모두 ‘어떤 물체의 겉을 싸고 있는 물질’의 뜻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깍데기’는 주로 굴의 겉을 싸고 있는 것과 같은 단단한 물질을 말하고, ‘깍질’은 주로 과일이나 채소처럼 단단하지 않은 물체의 겉을 싸고 있는 물질을 말한다. 그래서 ‘깍질’은 깎을 수 있지만, ‘깍데기’는 깎을 수 없고, ‘깍질’은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깍질째’ 먹는 것이 가능한 반면 ‘깍데기째’ 먹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처럼 의미적 유의어는 그 차이가 주로 문법적인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문법적 유의어에서 함께 다룬다.

논향은 서술어가 요구하는 필수 성분으로, 논향과 관련된 정보를 논향 정보라 한다. 논향 정보는 동사나 형용사가 다의적일 때 그러한 의미(sense) 차를 기술할 때도 유용하고 동사와 형용사 유의어들을 변별할 때도 유용하다. 더욱이 (11a)처럼 유의어가 결합관계에서 다른 양상을 가질 때, 그러한 것을

13) 본고의 ‘문법적 유의어’는 유현경·강현화(2003:249-250)의 ‘문법적 유사 관계’와 비슷하나, 문법적 유사 관계는 ‘어휘들의 의미가 유사하고, 모두 동일한 격들을 가지며, 주어의 논향도 유사한 것’에 한정하였다. 그러나 실제 다양한 유의어를 고찰한 결과, 문법적 유의어에 다른 두 유형이 있음으로 인해 본고는 두 가지 유형 모두 ‘문법적 유의어’로 묶었다.

설명할 때도 유용한 정보이다.

서술어가 통사적 층위에서 실현될 때 그것은 격틀을 가지는데, 격틀은 사전에서 동사와 형용사, 그리고 일부 부사 유의어 간의 차이를 기술하는 데 유용한 방법이다.

- (11) a. **옹색하다/궁색하다/군색하다**, **염려하다/걱정하다/근심하다**, **작다/왜소하다**, **무섭다/사납다**, **매료되다/매혹되다** ...
- b. **생각나다/떠오르다**, **잡다/쥐다/잡다**, **막다/덮다/씌우다**, **뜯다/따다/떼다** ...

위 (11a)의 ‘**옹색하다/궁색하다/군색하다**’의 의미와 격틀은 거의 비슷하다. 반면 주어 논항에 나타나는 명사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 아래 (11a', a'', a''')는 주어 논항에 올 수 있는 명사를 보인 것으로, ‘**옹색하다**, **군색하다**, **궁색하다**’는 주어의 의미 영역에서 차이가 있다.

- (11) a' **옹색하다**(1이 **옹색하다**, 1: 생활, 환경, ...)
- a'' **군색하다**(1이 **군색하다**, 1: 생활, 살림살이, ...)
- a''' **궁색하다**(1이 **궁색하다**, 1: 집안, 집, 살림, 모습, ...)
- (12) a. 하긴 그 때 우리 형편이 좀 **옹색했지/군색했지/궁색했지**.
- b. 그 당시 우리의 주거 환경이 얼마나 열악했는가. 그 **옹색하고/군색하고/궁색하고** 불편한 환경이라니, 다 때려 부수어도 괜찮다는 여론이 힘을 얻었다.
- c. 둘이 늙기도 **옹색하리만큼/\*군색하리만큼/\*궁색하리만큼** 비좁은 방은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위 (12a)의 ‘**옹색하다**’의 주어가 ‘**생활, 환경**’일 때는 ‘**군색하다**, **궁색하다**’와 동일 문맥에서 교체되나, 주어가 ‘**장소, 사람**’일 경우에는 ‘**군색하다**, **궁색하다**’와 교체되지 않는다. 이는 ‘**옹색하다**’의 의미(sense) 중 하나만이 ‘**군색하다**, **궁색하다**’와 유사하고 다른 의미에서는 다르기 때문이다. ‘**옹색하다/군색하다/궁색하다**’와 달리 의미는 유사하나 격틀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유형으로 ‘**생각나다/떠오르다**’가 있다.

- (11) b' 생각나다(1이 2가 생각나다, 1: 사람명사 2: 일, 사람, '-ㅁ/것'꼴의 절)  
 b" 떠오르다(1이 (2에) 떠오르다, 1: 생각, 기억, 모습..., 2: 머리, 뇌리...)
- (13) a. 일전에 선생님이 한번 놀러 오라고 한 게 **생각나서요**./\***떠올라서요**.  
 b. 선희는 갑자기 시골의 어머니가 **생각났다**/\***떠올랐다**.  
 b' 선희는 갑자기 시골의 어머니가 머리에 **\*생각났다/떠올랐다**.  
 c. 제주도 하면 으레 머리에 **\*생각나는/떠오르는** 것이 돌과 바람과 여자다.

‘생각나다’는 주로 사람 혹은 그 사람과 관련된 일이나 사건 등과 결합할 수 있는 반면 ‘떠오르다’는 주로 ‘머리에’를 논항으로 요구한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격투이 달라지며, 결국 ‘생각나다/떠오르다’가 동일 문맥에서 교체되기 어려운 것이다.

#### 2.1.4. 화용적 유의어

##### [1] 담화참여자

지금까지 간행된 거의 모든 사전에서는 일부 표제어에서 어휘 사용에 관한 용법(usage)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용법 중 특히 상황과 관련된 정보를 사용역(register)이라고 한다<sup>14)</sup>. 그리고 표제어의 사용을 상황과 관련지어 생각해 보면, 사용역은 크게 ‘담화참여자’와 관련된 것과 ‘담화상황(사용범위, 사용영역)’과 관련된 것으로 나눌 수 있다.<sup>15)</sup>

언어 사용에서 ‘담화참여자’와 관련된 것은 표제어를 사용하는 ‘화자, 청자, 화자와 청자의 관계 및 태도와 관련된 정보’를 가리킨다. 예컨대 ‘-고요/-구요’와 같은 어미는 화자의 성별에 따라 달리 선택되고, ‘배고프다/시장하다’는 화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 예이다. 즉 ‘시장하다’는 ‘배고프다’보다

14) 사용역이란 표제어의 어휘 사용에 관한 용법(usage)으로, 특히 사회적인 상황과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논자에 따라 ‘언어사용역’, ‘언어투식’, ‘화용정보’로 명명됐는데, 이것에는 화자의 성별, 화자의 연령, 화자와 청자의 관계, 화자의 태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15) 안의정 외(2008:30)에서는 사용역을 ‘발화상황’과 ‘사용자 집단’, ‘사용 범위’의 세 가지로 나눈 바 있다. 본고는 화용적 유의어 부문에서는 ‘담화참여자, 담화상황’의 둘로 나누었으나 실제 유의어의 의미 차이를 기술하는 부분에서는 ‘담화상황’을 다시 ‘사용범위’와 ‘사용영역’으로 나누었다. 자세한 것은 3.4.를 참고할 것.

점잖은 색채를 더하기 때문에 담화 생산자인 화자 또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대상이 중년 이상일 때 사용된다. 또한 ‘정보원/끄나폴’은 화자의 태도에 따라 달라지는 예이다. 이처럼 ‘담화참여자’와 관련해서, 유의어에 포함될 수 있는 사용역은 ‘일상어 대 높임말, 낮춤말’, ‘일상어 대 속어/비어’, ‘연령어’와 ‘성별어’가 있다.

‘담화참여자’에 따른 유의어 유형에는 먼저 발화상황에서 화자와 청자의 관계에 따라 형성된 것으로 ‘높임말, 낮춤말’이 있다.

- (14)a. 밥/진지, 어머니/모친, 아버지/부친, 학교/귀교, 회사/귀사 ... (높임말)  
 b. 마누라/마누라쟁이, 직장/밥벌이, 정보원/끄나폴, 코/코빼기, 거적/거적때기  
 ... (낮춤말)

‘밥/진지, 마누라/마누라쟁이’ 등이 바로 그러한 예인데, ‘진지’는 ‘밥의 높임말’로, ‘마누라쟁이’는 ‘마누라의 낮춤말’로 사전에 제시된다. ‘진지, 마누라쟁이’라는 ‘높임말/낮춤말’에 대비된 것을 도원영(2008)에서는 ‘예사말’이라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사전의 모든 표제어는 특별한 사용역이나 뜻풀이를 하지 않은 경우, 모두 ‘예사말’과 ‘일반어’에 해당된다. 따라서 본고는 특별한 사용역을 부여하지 않은 모든 어휘가 ‘예사말’이면서 동시에 ‘일반어’에 해당된다고 보아 사용역 표지로 ‘예사말, 일반어’를 설정하지 않았다.

화자와 청자의 연령, 성 및 태도에 따라 만들어진 유의어들은 아래와 같다. 이 때 ‘높임말/낮춤말’, ‘속어/비어’와 달리 ‘연령어’와 ‘성별어’는 대립되는 ‘일상어’를 상정하기 어렵다. 주로 십대들이 사용하는 ‘짱’은 ‘연령어’로 볼 수 있는데, 그렇지만 ‘짱’과 유의어를 이루는 구체적인 ‘일상어’를 대응시키는 어렵다. 그리고 ‘대로/대루’, ‘-고/-구’의 사용역으로 ‘여성어’를 줄 수 있지만, ‘성별어’에 대응되는 ‘일상어’를 대응시키기가 어려워, 본고는 ‘일상어’를 사용역으로 가정하지 않았다.

- (15)a. 아프다/편찮다, 배고프다/시장하다, 남편/바깥양반, 신/꼬까신... (연령)  
 b. 대로/대루, -도/-두, -고요/-구요, 호호/후후, 어머니 ... (성)  
 c. 우두머리/짱, 머리/대갈빡, 못된 사람/개새끼/개자식, 넓은 얼굴/떡판 ...

‘담화참여자’와 관련된 것으로 위 (15c)의 ‘속어/비어’가 있는데, 속어는 은어처럼 집단 내의 은밀성을 드러내지 않고 일부 연령층에서만 사용되는 경우가 있지만, 주로 공식적이지 않고 친밀한 자리 혹은 욕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누구나 속어/비어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발화 상황과도 관련될 수 있다. 그렇지만 본고는 ‘속어/비어’ 역시 담화참여자의 태도를 드러낸다고 보아, ‘속어/비어’도 발화상황이 아닌 ‘담화참여자’와 관련해서 다룬다. 이러한 유의어의 처리에 대해 자세한 것은 3.4.1.에서 다룬다.

## [2] 담화상황(사용범위 및 사용영역)

표제어 사용에 있어서 담화상황과 관련된 것은 담화 맥락에 대한 정보로 일반적으로 사전에서 사용역(register) 정보로 명시되는데, 실제 정보의 유형은 다양하다. 본고는 시대에 따른 유의어와 지역에 따른 유의어를 제외한 담화상황 정보로 사용범위와 사용영역만을 고려한다.

먼저 ‘무엇을/뭘, 편안하다/무고하다’처럼 해당 어휘의 사용범위가 다름에 따라 만들어진 유의어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담화상황이 말인가 글인가에 따라 유의어가 만들어질 수 있다. 사용범위에 의한 유의어 간의 차이는 3.4.2.에서 자세히 다루고, 여기서는 간단히 예를 제시하는 것으로 한다.

- (16) a. 무엇을/뭘, 곤란하다/뭇하다, 그것/그거, 대단히 좋다/기똥차다, 혼나다/경치다, 마구 행동하다/날치다 ... (입말)  
 b. 편안하다/무고하다, 상대편/귀족, 학교/귀교<sup>16)</sup>, 형/오형, 아버지/부주, 편지를 쓰다/웬을 들다 ... (글말)

위 (16a)의 ‘뭇’은 ‘무엇을’이 음운 탈락 및 축약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입말(구어)에서 주로 사용된다. 입말의 특성 상 짧고 간결한 형태가 선호되는

16) ‘학교/귀교’는 높임말과 글말이라는 두 가지 면에서 비교가 가능하다.

것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반면 (16b)의 ‘편안하다/무고하다’는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편안하다’가 주로 사용되는 반면 ‘무고하다’는 글말(주로 편지글)에서 상대의 안부를 물으면서 편지를 시작할 때 사용된다.

그리고 사용영역에 따른 유의어로 일반적인 상황에서 사용되는 일상어와 전문 영역에서 사용되는 ‘전문어’가 있다.

(17) 피/혈액, 양젯물/가성소다/수산화나트륨, 셋별/금성, 침샘/타액선/타선, 체장/이자 ...

위 (17)에서 어휘들은 기준 (1b)에 비추어 볼 때 유의어라 보기 어렵다. 그 근거로 유의어는 두 어휘의 개념적 의미가 유사하고, 동일 문맥에서 교체되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어휘들은 거의 모든 문맥에서 교체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18) 혈액 검사/피 검사, 혈액 응고제/\*피 응고제, 혈액 채취/\*피 채취, 혈액형/\*피형 ...

앞의 유의어의 조건 (1)에 따르면 위 (18)의 ‘피’와 ‘혈액’은 동일 문맥에서 거의 교체될 수 없기 때문에, 이 두 어휘를 유의어라고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피/혈액’ 유형과 관련하여 Ullman, S.(1957)은 순수한 과학적인 용법이며 감정적인 요소를 도외시하고 있는 경우로 이해해야 하며, ‘피/혈액’ 유형을 동일 지시물을 지시한다는 점에서만 ‘synonym’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본고는 Ullman(1957)의 입장과 달리 ‘유의어’를 동일 지시물이 아닌 개념적 의미가 유사한 것에 한정하였기 때문에, ‘피/혈액’ 유형은 ‘유의어’에 포함되기 어렵다. 그러나 본고는 이러한 유형을 두 가지 이유로 유의어에 포함시켰다.

먼저 유의어라고 할 때 그것은 어휘의 모든 조건에서 유사한 것이 아니라 특정 조건에서는 유사하나 다른 조건(1c)에서는 차이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아프다/뼈아프다’가 일부에서는 교체되나 다른 문맥에서는 교체되지 않는다고 한 바 있다. 의미가 유사하면서 동일 문맥에서 교체되면 유의어가 될 수

있지만, 의미가 유사하지만 다른 조건에 의해 동일 문맥에서 교체되지 않는다고 그것이 유의어가 아닌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동일 문맥에서 교체되지 않지만, ‘피/혈액’을 유의어로 보았다.

또 다른 이유는 사전에서의 ‘혈액’의 의미 기술에서 찾을 수 있다. 사전에서 ‘혈액’을 찾아보면,

(19) a. 피. 명사. ((의학)) 사람이나 동물의 몸 안의 혈관을 돌며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운반하는 붉은색의 액체.

b. 혈액. 명사. ((의학)) 피.

<표준>

와 같다. ‘혈액’을 사전에서 기술할 때 그것은 위 (19b)처럼 기술할 수밖에 없다. ‘피’가 아닌 다른 복잡한 기술은 학습자의 이해를 돕기보다는 이해를 저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고는 전문어 역시 유의어의 범위에 포함하여 논의한다.

## 2.2. 기능부담량에 따른 유의어 검증법

앞선 연구에서 유의어의 변별을 위해 사용한 방법으로는 교체, 결합, 반의어 및 배열 검증법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은 모든 품사의 유의어들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는 어렵다. 즉 교체 검증은 다양한 품사의 유의어를 변별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반면 배열 검증법은 정도성을 가진 부사류 혹은 과생형용사의 의미 변별에는 유용하지만 다른 품사에는 사용하기 어렵고 온도를 나타내는 정도부사 간의 유의성을 변별하기 위해서 교체와 배열, 결합은 사용할 수 있으나 반의어 검증법은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유의어 검증법은 그것이 적용되는 범위에서 동일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아래에서는 유의어의 변별 방법인 교체, 결합, 반의어, 배열 검증법이 담당하는 기능부담량이 다름을 논의할 것이다.

### 2.2.1. 교체 검증

먼저 교체 검증(substitution test)이란 모든 문맥에서 한 어휘를 다른 어휘로 의미 차이 없이 교체되는 것을 말한다. 어휘들의 유의관계를 밝히는 과정에서 문맥에 따라 교체 가능한 여부가 달라지면서 드러나는 것과 내포 의미의 차이를 통해 유의어의 의미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이 방법은 거의 모든 유의어 변별에 사용되지만, 그 적용 범위가 다름에 따라 전체 문맥에서 교체되는 유형인 (20)과 일부의 문맥에서 교체되는 유형인 (21)으로 나눌 수 있다.

- (20) a. 우리 민족은 분단이라는 뼈아픈/뼈저린 고통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b. 거짓된 국민은 망한다는 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일러주는 뼈아픈/뼈저린 교훈이다.  
c. 왜곡된 소신이나 맹신이 나라에 얼마나 지독한 해악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으로 뼈아프게/뼈저리게 터득했다.  
d. 추적은 자리에 누워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뼈아프게/뼈저리게 느꼈다.
- (21) a. 땅 위에 평화 없이 '하늘에 영광'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아픈/뼈아픈 경험을 통해서 인식하게 되었다.  
b. 바늘로 찌르듯 신체 한 부분이 아픈데 늘 아픈/\*뼈아픈 곳만 계속해서 아프다.  
c. 옆구리와 아랫배가 늘 단단하고 아프다/\*뼈아프다.

(20)의 ‘뼈아프다/뼈저리다’가 모든 문맥에서 교체될 수 있는데 반해 (21a)의 ‘아프다’와 ‘뼈아프다’는 ‘슬픔이나 연민이나 쓰라림 따위가 있어 괴로운 상태에 있다(표준).’의 의미로는 교체되나, 그 밖의 의미를 가질 경우(21b, c)에는 교체되지 않는다. 이처럼 유의어도 교체되는 맥락에 따라 전체와 부분 유의어로 나눌 수 있다.

교체 검증은 명사뿐만 아니라 다른 품사에도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는데, 동사, 형용사, 부사에서의 교체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 (22) a. 서양인들은 빵을 뜯어/떼어 먹는다.  
b. 언젠가 언니하구 둘이서 나물 뜯고/\*떼고 달래 캐러 갔다가 아는 집에서 하루 자구 왔는데 집에서 난리가 나서 아버지께 아주 혼났지.

- (23)a. 남대문 시장에 들러 가장 **큰/크나큰** 가방 두 개를 샀다.<sup>17)</sup>  
b. 그 동안 지구의 비무장을 무장으로 바꾸는 데 하대치가 세운 공은 무척이나 **컸다/\*크나컸다**.  
c. 저는 이 같은 전문가들 사이의 연계체제가 학문발전에 **크게/\*크나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 (24)a. 형수는 숨을 후 들이키며 가까이 있는 전신주에 뒤에 몸을 **빠르게/재빠르게** 숨겼다.  
b. 무슨 생각을 했는지 지영은 **\*빠른/재빠른** 손으로 밀가루 포대를 뒤집어 본다.

우리는 교체 검증에서 드러나는 양상을 통해 유의어의 의미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방법은 해당 어휘가 결합 제약을 가지는 것과 그러한 제약이 해소되는 조건을 기술할 때에도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그 사용 범위가 넓은 검증법이다.

## 2.2.2. 결합 검증

결합 검증(co-occur test)은 어휘들이 결합하여 문장을 이룰 때 주어진 위치에서 공기할 수 있는 어휘 및 자주 결합하는 것을 보는 검증법이다. 개념적 의미가 동일한 어휘들이 선행어와 후행어의 결합에서 보이는 양상은 다른데, 그러한 차이를 통해 유의어 간의 차이를 기술할 수 있다. 결합 검증은 유의어 변별을 위해 모든 품사에 적용할 수 있으나, 각 품사별로 결합 검증에서 보이는 특징은 다르다. 예컨대 명사는 선행어와 후행 동사와의 결합을 통해서 유의어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아래 예문에서,

- (25)a. 말을 이으면 목메는 게 표날까봐 **입을** 꼭 다문다./**입에** 답지 못할 말을 하면서까지 돈을 받아 가지고 그럴 일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b. 너는 왜 쓸데없이 그렇게 **주둥아리를** 놀리냐?/"나오리, 제가 어찌 **주둥아리를** 함부로 놀릴 수가 있겠습니까."

---

17) '크다/크나크다'와 '빠르다/재빠르다'는 성분 분석 결과로 도출된 의미 자질의 포함 관계로 기술할 수 없기 때문에, 본고는 이것들을 상위어와 하위어로 분류하지 않는다.

- c. "이년, 또 **아가리** **놀렸다**가는 삼짝 출입 못할 줄 알아." 평산은 마지막으로 으뜸장을 놓고 떠났다./"**아가리** **닥치!** 이 손 놓지 못해!"
- d. 경남 고성군 덕명리 해안의 중생대 진동층에서 무척추동물이 기어 다닌 흔적과 새가 **부리로** **쫓** 흔적도 출토돼 1억 년 전의 생태계를 생생히 재현하고 있다.

(25)의 ‘입, 주둥아리, 아가리, 부리’는 결합하는 선행어 혹은 후행 서술어의 다름을 통해 그 차이를 가능해 볼 수 있다. 먼저 ‘입’은 주로 ‘~을 다물다, ~에 답다’와, ‘주둥아리’는 ‘(함부로) ~를 놀리다’와, ‘아가리’는 ‘~를 놀리다, ~를 닥치다’와, ‘부리’는 선행어로 ‘새’와 후행하는 서술어로는 ‘쫓다’와 주로 결합한다. 선행어와의 결합을 통해 ‘입, 주둥아리, 아가리’는 사람에게 ‘부리’는 새에게 쓸 수 있는 것과 후행어인 서술어와의 결합으로 ‘주둥아리, 아가리’가 ‘입’보다 상대적으로 상대에 대한 낮은 평가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품사에서의 결합 현상을 보이면 아래와 같다.

- (26) a. **갑자기** 끊어지다/추워지다/등장하다/뛰어내리다/떠오르다/별떡 일어서다/쓰러지다/끊기다/폭발하다
- b. -는 대로, 도착, 서명, -으면, -는 즉시 가다/가입하다/시정되다/시행하다/연락 바람/처리하다

기존의 논의에서 ‘갑자기’는 ‘미처 생각할 겨를도 없이 급히(표준).’와 ‘즉시’는 ‘어떤 일이 행하여지는 바로 그때.(표준)’로 둘 다 ‘짧은 시간 사이에’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 둘은 결합하는 선행어와 후행어에서 차이를 보인다. ‘갑자기’의 후행 서술어는 이전의 상태와 후행하는 상태가 달라졌음을 지시하지만, 선행 사건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반면 ‘즉시’는 선행어로 ‘-는 대로, -는, -면’이나 ‘도착, 졸업’과 같은 서술성 명사와 결합하고, 이러한 선행어에 이끌리는 사태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예문 (26)에서 보듯이, 부사는 특정 어미를 요구하거나, 특정 용언과 제한적으로 결합하는 특징을 보인다. 부사 유의어 기술 시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동사 유의어의 의미 차이는 주로 선행어인 목적어와 부사와의 결합으로 확인할 수

있다.

- (27) a. 짝귀도 작대기를 찾아 **잡고/쥐고/집고** 주막을 나섰다.  
b. 고대의 왕은 입법, 사법, 행정, 군사 등 모든 세속적 권력을 독점하고, 아울러 최고의 주재자로서의 종교적인 실권을 **잡고** 있었다.  
c. 그 놈이 재단의 실권을 **쥐면서부터**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맞게 된 것입니다.  
d. \*그 놈이 재단의 실권을 **집으면서부터**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맞게 된 것입니다.

위 (27)의 ‘잡다, 쥐다’는 손을 이용하여 구체적인 대상을 움키는 행위를 지시하는 반면 ‘집다’는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이용하여 구체적인 대상을 움키는 것을 지시한다. 우선 ‘잡다, 쥐다’와 ‘집다’는 도구가 다름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선행어인 목적어에 따라 유의어들의 결합 관계가 달라지는데, ‘실권, 권력’과 같은 명사가 선행할 때 ‘잡다, 쥐다’는 가능하나, ‘집다’는 불가능하다. 이는 ‘집다’의 의미에 포함된 손가락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즉 우리는 손가락으로 구체적인 사물을 움킬 수는 있으나 추상적인 사물을 움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 밖에 특정 명사와, 부사, 조사, 어미와의 결합을 통해 동사 유의어 간의 차이가 밝혀질 수 있다.<sup>18)</sup>

위에서 살펴본 결합 검증은 다양한 품사에 이용할 수 있지만, 품사별로 결합 관계에서 차이가 있음을 살펴보았다.

### 2.2.3. 반의어 검증

반의어 검증(opposite test)은 해당 유의어의 반의어를 사용하여 그 유의어 간의 차이를 찾는 방법으로, 이 검증법은 주로 형용사와 부사에 적용된다. 예컨대, ‘따뜻하다-온화하다’의 의미 차이는 반의어인 ‘차다-냉랭하다’로 더욱

18) 명사와 조사와의 결합은 3.2.2.에서 동사의 활용에 대한 것은 3.2.1. ‘용언의 활용’에서 자세히 다룬다.

분명히 파악할 수 있다.

(28) a. 따뜻하다 - 온화하다

a' 차다 - 냉냉하다

(29) a. 부처님 오신 날인 10일은 전국적으로 맑고 **따뜻한** 날씨가 예상된다.

b. 바깥 날씨가 매우 **차니** 모두들 옷을 단단히 입어라.

(30) a. 중하는 여전히 **온화한** 어조로 물었다. 그러나 도 사장은 절로 이마가 찌푸러지며...,

b. 형사들을 외면한 채 그녀는 **냉냉한** 어조로 말했다.

#### 2.2.4. 배열 검증

배열 검증(arrangement test)은 유의성의 정도가 모호한 어휘들을 하나의 계열로 배열하여 유의관계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개념적 의미는 비슷하면서도 정도성의 차이를 지닌 유의어들을 정도성의 차이에 따라 선적으로 배열해 봄으로써 유의어군 내에서의 위치와 각 어휘간의 의미 차이를 파악할 수 있다. 이 검증법은 주로 빈도 부사처럼 정도성을 가진 부사와 정도성을 가진 파생형용사에서 사용된다. 아래는 정도성을 가진 형용사와 명사와의 결합을 보인 것이다.

(31) a. 선선한/시원한/서늘한/싸늘한/쌀쌀한/찬/차가운/추운 날씨

b. \*찬/차가운/싸늘한/\*선선한/\*시원한/쌀쌀한/\*서늘한/싸늘한/\*추운 태도

위 형용사는 정도성을 가진 것으로 후행어에 따라 결합 제약에서 차이를 보인다. 위 (31a)의 형용사는 ‘날씨’와의 결합이 자연스럽다. 반면 (31b)의 ‘태도’는 ‘차가운/싸늘한/싸늘한’과만 결합할 수 있고, 다른 형용사와는 결합 제약을 가진다. 정도성을 가진 형용사와 부사는 의미가 유사하나 정도 면에서 차이를 보이며, 이러한 것은 결합하는 성분과의 제약에서 다르게 실현된다. 그러한 부사로 아래와 같은 것도 있다.

(32) 때로/때대로/이따금/간혹/틈틈이/사이사이/가끔/더러/간간이/왕왕/드문드문/띄엄띄엄/시시로 (강현화, 2007에서 재인용함)

정도성을 가진 부사들이 동일 문맥에서 교체 유무를 통해, 각 부사 의미의 개별적 특성과 용법을 파악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정도성을 가진 일부 어휘에 적용된다는 범위 상의 제약과 함께 자칫 주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한계가 있다.

### 3. 유의어의 의미 차이를 기술하기 위한 방법

유의어의 의미 차이를 기술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의미적, 형태적, 통사적, 화용적 방법이 있다. 의미적 방법으로는 구분자나 서술어와 결합하는 논항의 의미를 기술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한 구분자와 논항의 의미 기술은 다양한 품사에 적용될 수 있으나, 격들이나 활용형의 제약 등은 동사, 형용사와 일부의 부사에서는 사용할 수 있지만, 명사에는 사용하기 어렵다. 유의어의 차이를 보여주는 방법이 각 품사별로 차이가 있는데 그러한 것을 아래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3.1. 의미적 방법

##### 3.1.1. 구분자: 의미자질

사전의 뜻풀이 방식 중 사용자가 원하는 의미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뜻풀이 번호 다음에 제시된 (음영 표시의) 대문자를 Signposts라고 하는데, 이것을 통하여 사전 사용자는 뜻풀이를 끝까지 읽지 않고도 자신의 원하는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한 외국 사전으로는 Cambridge Advanced Learner's Dictionary와, Longman Dictionary of Contemporary English가 있고, 국내의 사전으로는 『연세 초등국어사전』, 『연세 학습자 사전』 등이 있다. 이들 사전에서 사용한 방법을 보이면 아래와 같은데,

- (33)a. 배 【몸】 몸에서 가슴과 다리 사이에 있는, 몸의 앞부분.  
b. 배 【탈것】 물 위에 떠서 사람이나 짐을 실어 나르는 교통수단.  
c. 배 【과일】 껍질은 누렇게 속은 희며 시원하고 단맛이 나는, 가을 과일.  
d. 배 【세는 말】 [수를 나타내는 말 뒤에 써서] 같은 수량을 여러 번 합한 만큼의 분량. 곱질. <연세 초등학교사전>
- (34)a. chorus SONG PART /kɔːrəs/ noun ...  
b. chorus SINGING GROUP /kɔːrəs/ group noun ...  
c. chorus THEATRE GROUP /kɔːrəs/ group noun ...  
d. chorus SPEAK TOGETHER /kɔːrəs/ group noun ...  
<Cambridge Advanced Learner's Dictionary>

위의 Signposts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것을 본고는 ‘구분자’라 하고, 그것은 단어를 성분분석한 결과 추출된 자질 중 하나이다. 의미자질 중 변별적인 것을 구분자로 제시하고, 이것을 통하여 학습자는 해당 유의어 간의 차이를 더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아래 (35)에서 구분자를 [ ]로 표시하였다.

- (35)a. 입 【사람】 먹고 소리를 내는 신체 기관으로, 입술에서 목구멍에 이르는 부분.  
b. 부리 【새】 주둥이.  
c. 주둥이 【짐승】 입.  
d. 아가리 【동물】 입.

이러한 구분자는 유의어뿐만 아니라 다의어의 의미에서 다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sup>19)</sup> 그러나 구분자가 모든 표제어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닐 뿐더러 의미자질이 여러 가지일 경우 무엇을 구분자로 설정할 것인지는 여전히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분자’를 통해 학습자는 유의

---

19) 『연세 한국어사전』에서 동사는 참고에 격들과 논항정보를 제시하여 해당 동사의 용법을 보였다. 『연세 현대한국어사전』은 이러한 정보와 함께 뜻풀이 앞의 괄호에 해당 동사가 요구하는 대표적인 명사를 제시하여 표제어의 이해를 도왔다. 아래의 ‘굴러가다’는 바로 그러한 방법을 이용, 의미 기술을 한 것이다.

(1) 굴러가다 동. 1. (차가) 구르며 가다. 2. (일이) 어떤 방향으로 계속되어 나간다.

어 간의 차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본고 역시 구분자를 사용하여 유의어 간의 의미 차이를 기술하였다.

### 3.1.2. 논항의 유형

‘작다, 왜소하다’는 ‘크기가 보통의 정도에 못 미치다.’는 뜻을 공통으로 가지면서, ‘왜소하다’는 ‘작고 초라하다(표준).’라는 뜻풀이에서 보듯이, 부정적인 의미를 추가로 가진다. 아래 (36c)의 결합 관계를 통해, ‘왜소하다’는 ‘작다’보다 의미 영역이 작고, 주로 유정명사의 속성을 기술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때 ‘왜소하다’와 ‘작다’를 구분 짓는 주요한 기준으로는 주어 논항의 유형을, 부차적인 기준으로는 ‘격틀의 차이’를 가정할 수 있다.

- (36) a. **작은/\*왜소한** 회사니까, 서로 인간적으로, 친하게 지내고 좋아.  
b. **작은** 강의실/공간/구멍/규모/글씨/기업/꿈/마을/방/소홀함/일/정성/주전자/힘  
c. **왜소한** 남편/덩치/모습/몸집/인간/체격/체구
- (37) a. (1이/1의) 2가 작다(1: 구체명사, 추상명사)  
b. 1이 왜소하다(1: 사람명사, 몸집, 체구...)

아래의 ‘그만두다’와 ‘포기하다’는 공통된 의미인 ‘중도에 그치다’를 가지지만, 두 서술어가 요구하는 목적어는 다르다. 먼저 ‘그만두다’는 주로 ‘일이 나 행동’을 나타내는 명사, 명사절을 목적어로 요구하는 반면 ‘포기하다’는 ‘무엇을 하려던 생각’인 ‘꿈, 생각, 결혼’과 같은 추상적인 명사를 목적어로 요구한다. 아래 (39b, c)에서 ‘그만두다’와 ‘포기하다’가 교체되지 못하는 이유는 목적어 논항에 있다.

- (38) a. 1이 2를 그만두다(1: 사람명사, 2: 일, 회사...)  
b. 1이 2를 포기하다(1: 사람명사, 2: 꿈, 생각, 결혼...)
- (39) a. 장애는 머리의 물기 말리는 것을 **그만두고/포기하고**, 옷을 꺼내 입었다.  
b. 용득이 회사를 **그만두게/\*포기하게** 된 건 결코 그의 잘못 때문이 아니다.

- c. 그녀는 독신으로 살 각오를 하고 한국 선교를 위해 결혼을 \*그만두었다/포기하였다.

## 3.2. 형태적 방법

### 3.2.1. 용언의 활용

체언이 문장에서 문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조사가 교체되듯이 용언도 문장에서 문법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어미가 바뀐다. 이러한 용언의 끝바꿈을 활용이라 하는데, 용언의 활용 방식이 모두 동일하지는 않다. 예컨대, ‘많다/수 많다’와 ‘꾸짖다/나무라다’는 유의어이다. 그러나 이들은 활용꼴에서 같지 않음을 아래 (40)와 (42)에서 볼 수 있다.

- (40) a. 많다. 형. (수, 양 등이) 일정한 기준을 넘다.  
b. 수 많다. 형. [주로 ‘수많은’ 꼴로 써서] (개수, 수효가) 매우 많다.
- (41) a. 많은/수 많은 연들이 하늘 높이 띄워졌다.  
b. 소백산맥 지역에는 소중한 불교 유적들이 많다./\*수 많다.  
c. 도시에는 사람과 자동차가 많아서/\*수 많아서 거리가 복잡합니다.
- (42) a. 꾸짖다. 동.윗사람이 아랫사람의 잘못에 대하여 엄하게 나무라다.  
b. 나무라다. 동. [주로 ‘나무랄 데가 없다’의 꼴로 써서] 흠이나 부족한 점을 지적하다.
- (43) a. 그분은 여러모로 꾸짖을/나무랄 데가 별로 없는 사람이예요.  
b. 아버지는 노기를 띤 목소리로 준형을 엄히 꾸짖는다/\*?나무란다.

‘많다, 수 많다’는 ‘개수나 수효가 기준보다 더 있다’를 뜻하지만, (41b, c)에서 보듯이 동일 문맥에서 교체되지 못한다. 그 이유는 ‘수 많다’의 활용형에서 찾을 수 있는데, ‘수 많다’가 ‘주로 수많은’ 꼴로만 쓰이기 때문이다(40b). 그리고 ‘꾸짖다/나무라다’가 (43a)의 꼴에서는 교체되나, 그 밖의 꼴에서는 서로 교체되지 않는다. 말뭉치 분석 결과 (43b)의 ‘나무란다’는 주로 드라마나 영화의 대본에서 배우의 행동을 묘사하는 지문에 주로 나타나고, ‘나무란다’고처럼 간접 인용형으로 나타나며, 서술어로 거의 쓰이지 않는다. 활용형에 의

한 유의어 변별은 주로 형용사나 동사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다른 품사에서 사용하는 사용하기 어려운 방법이다.

### 3.2.2. 조사 결합

용언이 문장에서 문법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활용을 하듯이, 체언 등이 문장에서 문법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조사를 교체한다. 조사는 체언, 부사, 문장 등 다양한 단위에 결합될 수 있다. ‘방금/금방’은 부사이며, ‘바로 조금 전’이라는 공통된 의미를 가진다. 해당어가 ‘바로 조금 전’의 의미일 때, (44a)에서 보듯이 두 어휘는 교체될 수 있다.

(44) a. 방금/금방 뭐라고 하셨지요?

- b. 방금까지/\*금방까지 멀쩡하게 잘 읽히던 디스켓이 커피 한 잔 하고 돌아오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이다.
- c. \*방금이라도/금방이라도 비를 뿌릴 듯한 습기찬 바람이 코 속으로 스며들어 왔습니다.
- d. 이대로 가다가는 내년 대선에는 후보가 20명은 될 것 같다. 도마다 지역마다 주자와 기수와 맹주가 나서고 있으니 15개 시·도에서 한명씩만 나와도 15명, 큰 지역에서 두 명이 나오면 20명은 금방이다/\*방금이다.

‘방금’은 주로 ‘방금까지’로 실현되며, 이 때 그것은 과거 사건을 기술하는데, 이는 (44b) ‘읽히던’으로 알 수 있다. ‘방금’은 과거의 의미만 가지고, ‘금방’은 과거의 의미 외에 ‘조금 뒤에’라는 의미도 가진다. ‘금방’은 ‘금방이라도(10.8%)’ 꼴로 가장 많이 쓰이며, ‘금방이라도’는 미래적 사건을 기술하는데 그것은 앞으로 있을 사태를 지시하는 ‘뿌릴 듯한’으로 더 분명해진다.

뿐만 아니라 미래적 의미일 때 ‘금방이다’는 가능하나 ‘방금이다’로는 불가능하다. 조사 결합을 통해 유의어의 차이를 파악하는 것도 유용한 한 방법이다. 그러나 조사 결합은 체언류와 주로 부사에서 사용할 수 있고, 동사와 형용사에는 사용할 수 없다.

### 3.3. 통사적 방법

#### 3.3.1. 결합 관계 변화

명사 유의어의 차이는 선행 수식어와 후행 서술어와의 결합 양상으로, 동사류는 선행하는 논항의 특성 및 격틀의 차이로, 부사류는 결합 구성으로 그 차이를 알 수 있다. 수식어는 주로 명사 유의어의 차이를 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 아래에서 ‘취직/취업’과 ‘몸/신체’를 통해 그 기능을 살펴 보자.

(45)a. 위장/해의 **취업**

**취업** 가능성/교육/사기/설명회/\*시험/알선/여성/희망자

b. \*위장/\*해의 **취직**

**취직** 걱정/문제/\*설명회/시험/자리

c. 취업/취직 ~을 하다, ~이 되다, ~을 시키다, ~알선하다, ~을 못하다, ~을 부탁하다

‘취업, 취직’은 선행 수식어 및 후행 명사와의 결합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반면 ‘취업/취직’은 동사 결합 구성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수식어와의 결합 관계를 통해 ‘취업/취직’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것은 아래의 ‘몸, 신체’에서도 동일하다.

(46)a. 사람의/여자의 **몸** 걱정/관리/길이/만들기/밖/상태/속/안/전체 (~에) ~을 담다, ~을 만들다, ~에 ~을 바치다

b. 인간의/여성의 **신체** 검사/부위/발달/사이즈/상황/이상/장애/접촉/활동

위 (46)에서 ‘사람의, 여자의’가 ‘몸’을 수식하는 반면 ‘신체’는 ‘인간의, 여성의’가 수식한다. 그리고 ‘몸’과 ‘신체’는 후행어로 ‘길이/사이즈’를 제외하면 공통되는 어휘가 없다. 특이한 점은 ‘몸’은 ‘~에 몸을 담다/바치다, ~을 만들다’와 함께 자주 쓰이나 ‘신체’는 그러한 표현과 함께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후행어와 선행어와의 결합 관계는 명사 유의어 간의 차이를 기술하는데 유용한 방법 중 하나이다.

### 3.3.2. 격들의 차이

앞에서 서술했듯이, 서술어가 통사적 층위에서 실현될 때 그것은 격들을 가진다고 했다. 이러한 격들은 유의어뿐만 아니라 다의어의 의미 기술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 아래의 ‘무섭다’는 속성을 나타내기도, 상태를 나타내기도 한다.

- (47) a. 호랑이가 **무섭다/사납다**.  
       b. 나는 호랑이가 **무섭다/\*사납다**.
- (48) a. 1이 무섭다(1: 유정명사, 성격, 성질...)  
       a' 1이 2가 무섭다(1: 사람명사, 2: 호랑이, 물, 불...)  
       b. 1이 사납다(1: 유정명사, 성질, 행동...)

‘무섭다’는 속성과 상태를 기술하는데, 그것이 속성일 때 그것은 (47a)에서 보듯이 ‘사납다’와 교체될 수 있다. 이 경우 ‘무섭다’와 ‘사납다’는 유의어를 이루며, 두 어휘의 격틀 역시 동일하다. 그렇지만 ‘무섭다’가 속성이 아닌 상태를 기술할 경우, 그것은 (48a)과 같은 격틀을 가지며, ‘무섭다’는 ‘사납다’와 교체될 수 없다. 이 경우에 ‘무섭다’와 ‘사납다’는 더 이상 유의어가 아니다.

의미가 유사하지만 격틀이 달라 교체될 수 없는 또 다른 유형이 있다.

- (49) a. 구자라트 문자는 한글과 상당히 **가깝다/근사하다/유사하다/비슷하다**.  
       b. 구자라트 문자는 한글에 상당히 **가깝다/근사하다/유사하다/\*비슷하다**.<sup>20)</sup>

위 (49a)의 ‘가깝다, 근사하다, 유사하다, 비슷하다’는 의미가 유사하며, 격틀이 동일할 경우 네 어휘는 서로 교체될 수 있다. 반면 (49b)에서 ‘비슷하다’

20) 이 예문은 붐비경(2005:116)의 (24)를 다시 재인용함.

는 ‘가깝다, 근사하다, 유사하다’와 교체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다른 서술어와 달리 ‘비슷하다’가 ‘에’논항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앞에서 ‘가깝다, 근사하다, 유사하다, 비슷하다’처럼 문법적인 부분에서 달라서 만들어진 유의어를 문법적 유의어라고 하였고(2.1.3.), 위 (49b)의 ‘비슷하다’가 다른 어휘들과 교체가 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격틀에서 찾을 수 있다.

### 3.4. 화용적 방법

유현경 외(2009)에 따르면, 사전 표제어의 사용역(register) 정보나 해당 표제어의 실제 사용과 관련한 사회·문화적 제약 정보, 텍스트에 따른 사용 빈도 정보 등은 화용 정보에 속한다. 이러한 화용 정보의 내용은 연구자마다 다른데, 먼저, 유현경 외(2009)는 네 가지 즉 ‘담화 참여자와 관련된 화자, 청자, 화자와 청자 간의 상호 작용 및 태도’, ‘입말, 글말, 장르 등 사용역 정보가 주를 이루는 담화상황에 대한 정보’, 실제 언어 사용과 관련된 화용 정보인 해당 표제어의 ‘담화 기능’에 대한 정보, ‘언어 외적인 정보로서 표제어와 관련한 사회·문화적 사용상의 정보나 출현 빈도 정도’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반면 화용 정보라고 명시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홍종선 외(2009)는 그러한 것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을 ‘사용역 정보’라 하고, 사용역 정보에 9가지인 ‘시간성에 따른 분류, 공간에 따른 분류, 규범에 따른 분류, 언어적 도구에 의한 분류, 화·청자 관계에 따른 분류, 사용자 계층과 집단에 따른 분류, 어휘 사용의 태도에 따른 분류’ 등을 포함시켰다.<sup>21)</sup> 또한 봉미경(2005)은 화용적 차이를 만드는 것으로 ‘준비 관계, 연령별 어휘 사용, 계층별 어휘 사용, 완곡성’을 들었다. 아래 (50)의 밑줄 친 부분은 『표준국어대사전』에 제시된 것으로 이것들은 화용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 (50) a. 가분수 #1 「명」 2. 몸집에 비하여 머리가 큰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b. 면대 #1 「명」 1. ‘변소’를 완곡하게 이르는 말.  
 c. 귀교 #1 貴校 귀 : - 「명」 주로 편지 글에서, 상대방의 학교를 높여 이르는

21) 사용역에 포함된 유형과 그에 따른 자세한 분류는 홍종선(2009: 176-181)을 참고할 것.

말

d. 답싸움하다 #1 ... 「동」 3. (놀림조로) 시답지 않은 싸움을 하다. <표준>

화용 정보는 표제어의 실제 사용상의 정보로 뜻풀이, 용례, 용법을 포함한 표제어의 기타 참고정보에 제시되는데, 위 (50a, b)에서 화용 정보는 풀이말에서 ‘놀림조로/완곡하게 이르는 말’로 제시된 반면 (50c)에서는 풀이말의 앞에서 ‘주로 편지 글에서’라는 사용 환경과 함께 ‘-을 높여 이르는 말’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50d)에서는 화자의 태도 및 사용자 집단에 대한 정보가 ( )와 풀이말의 앞에 제시되었다. 이러한 정보는 때로는 풀이말에, 때로는 참고 정보에, 때로는 풀이말 앞의 ( )로 제시하는 등 일관된 방식으로 처리되지 못했다. 실제 다양한 품사의 단어를 일관된 방식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22)

본고는 이러한 화용정보에 사용자 집단 및 계층, 발화 장면, 화·청자 간의 관계 및 태도, 연령, 완곡성을 포함하여 논의하는데, 아래 3.4.1.에서는 담화참여자 특성에 따른 차이를, 3.4.2.에서는 사용범위인 매체에 따른 차이를, 3.4.3.에서는 사용영역에 따른 차이를 기술한다.

### 3.4.1. 담화참여자에 따른 유의어(높임말, 낮춤말, 속어/비어, 완곡어)

담화참여자인 화·청자의 관계에 의해 만들어지는 유의어에는 예사말 대 높임말, 낮춤말이 있고, 언어 사용자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만들어지는 여성어, 남성어, 유아어, 노년어가 있다(홍중선 외 2009). ‘담화참여자’에 따른 유의어의 처리는 아래와 같이 한다.

- (51)a. 아프다/편찮다: 편찮다 형. 1이 (2가) 편찮다(1: 사람명사, 2: 몸) #**높임말**#  
(어른들께 쓰는 말로) 몸이 좋지 않다. (높임말)
- b. 거적/거적때기: 거적때기 명. #**낮춤말**# 거적. (낮춤말)
- c. 신/꼬까신: 꼬까신 명. (**어린이의 말로**) 알록달록하게 곱게 만든 어린이의 신발. (연령)

22) 이러한 화용 정보의 사전적 처리에 있어서 다양함은 안의정(2008:35)을 참고할 것.

- c' 매우/짱; 짱3 부. **참고:** 주로 10대나 20대가 쓴다. **#입말#** (속어로) 매우.  
(연령)
- d. -고(요)/-구(요): -구요 어. **참고:** 주로 여자들이 사용한다. '-고요'의 입말.  
(성)

‘높임말’, ‘낮춤말’, ‘연령’, ‘성’에 따라 달라지는 어휘 사용에 대한 정보는 위 (51)에서 보듯이, 사전과 품사에 따라 그 처리 방식이 일관되지 않지만, (51a, b)에서처럼 주로 풀이말 앞에 해당 사용역 표지를 부여하거나 혹은 (51c)처럼 풀이말에서 기술하거나, (51c', d)처럼 참고 정보에서 기술하게 된다.<sup>23)</sup>

앞에서 ‘담화참여자’와 관련된 것으로 ‘속어/비어’를 설정하였다. 속어와 비어에 대해 연세 사전에서는 ‘비어’는 욕으로 쓰이는 말에 한정하고, ‘속어’는 통속적으로, 점잖지 못하게, 또는 친하게 상스럽게 사용하는 모든 말을 가리킨다. 이렇게 볼 때 모든 비어가 속어일 수 있지만, 모든 속어가 비어는 아니다. ‘속어와 비어’ 역시 담화참여자의 태도가 드러난다고 보아, 발화상황이 아닌 ‘담화참여자’와 관련해서 다루며, 각각의 처리 방식은 아래와 같다.

- (52) a. 머리/대갈뺨; 대갈뺨 명. **#속된말#** 머리.  
b. 행동하다/굴러먹다; 굴러먹다 동. **#속된말#** 아무 일이나 닥치는 대로 하면서 친하게 살다.  
c. 못된 사람/개새끼; 개새끼 명. 1. **#비어#** 성질이나 행실이 못된 사람. 2. **#속어#** 개의 새끼.

은어도 통용 범위가 넓은 것과 좁은 것으로 나눌 수도 있지만, 그 범위에 대한 일관된 기준을 세우기 어려워 본고는 은어를 유의어의 표제항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연구 범위에서 밝힌 바 있다.

- (53) a. 죽다/돌아가시다/세상을 뜨다, nada/태어나다/출생하다/탄생하다/왕생하다/강생하다/환생하다/극락왕생하다/성육신하다, 결혼하다/시집가다/장가가다/

23) 화용 정보의 기술 방식에 대한 것은 유현경·남길임(2009: 272-277)을 참고할 것.

## 조 민 정

혼인하다/화촉을 밝히다/국수를 먹다, 오줌/소피, 변소/화장실/면데/해우소, 대변/큰것, 소변/작은것, 월경/몸엿것, 첩/작은마누라/작은계집 ... (완곡어)

- b. 오줌/소피; 소피 所避 명. 표현: ~을 누다 [**완곡한 말로**] 오줌, 또는 오줌 누는 일.

(53a)의 어휘들은 ‘완곡어’에 해당하고, 완곡어는 담화참여자의 관계, 혹은 담화상황에 따라 선택되어서 하나의 기준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렇다 해도 완곡어는 학습자가 여러 유의어 가운데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에 가장 적절한 것을 찾으려 하는 데 유용한 것으로 보아 유의어에 포함시켰다.

위의 (53a)에서 보듯이, 완곡어는 주로 ‘탄생, 죽음, 결혼, 배설, 성’과 관련되어 만들어진다. 대표적으로 『연세 현대한국어사전』에서 ‘죽다’는 대상이 누구인가 혹은 죽는 방법이 어떠한가에 따라 무려 102개의 유의어 쌍을 볼 수 있다. 아래에서는 ‘결혼하다’의 다양한 유의어 및 표현을 보이기로 한다.

### (54) ‘결혼하다’의 다양한 표현

- a. 시집가다/시집보내다/출가하다 등. (**여자가**) 결혼하다/시집을 가다.
- b. 장가가다/장가들다/장가보내다 등. (**남자가**) 여자를 아내로 맞다.
- c. 결혼하다/혼인하다/성혼하다, 혼례를 치르다/올리다, 혼사를 치르다, 결혼식을 올리다 등. (**두 사람이**) 정식으로 부부가 되다.
- d. 화촉을 밝히다/웨딩마치를 올리다/합환주를 마시다 부표. (**결혼식 과정에서**) 혼례식을 올리다.
- e. 국수를 먹다. 부표. (**옛날 전통 혼례 음식 문화에서 온 말로**) 남의 결혼식에서 대접을 받다.

위 (54)의 ‘결혼하다’와 관련된 유의어 및 완곡어도 누가 결혼하는가, 결혼식 과정의 특정한 행위 등에서 가지는 차이에 의해 만들어진다. ‘여자가’, ‘남자가’, ‘두 사람이’, ‘결혼식 과정’ 등과 같은 정보에 의해 유의어 간의 차이가 면밀히 기술된다면, 그러한 정보를 통해 학습자가 유의어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표현을 골라 쓰는 데 유익할 것이다.

### 3.4.2. 사용범위인 매체에서의 차이

매체에서의 차이란 문어와 구어 혹은 글말과 입말에서의 개념의 차이를 말한다. 문어/구어의 구별과 관련하여 최근의 논의에서는 문어체/구어체 또는 문어성/구어성이라는 개념을 설정하기도 한다. 장경현(2003)에서는 ‘문어/구어’의 개념은 발화의 종류를 나타내는 반면 ‘문어체/구어체’는 특징적인 양식을 나타내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이진희(2003)에서는 2차원적 연속모델을 제시하면서 매체적 차원에서는 음성적·자소적 특성을, 언어영향성 차원에서는 구어적·문어적 특성을 구별하였다. 예컨대, 일상 대화는 음성적이면서 구어적인 매체이고, 일반적인 글은 자소적이면서 문어적인 매체인 반면 편지는 자소적이면서 구어적이고 강연은 음성적이면서 문어적으로 본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본고는 사용역 표지로 ‘입말/글말’을 부여하되, 그것의 구체적인 정보 즉 입말은 순수 입말(대화)과 구어체(편지)가 있고, 글말에는 순수 글말(문어)과 문어체(강연)가 있다는 것을 참고 정보에서 제시하는 것으로 하였다.

- (55) a. 무엇을/뭘, 곤란하다/똥하다, 굴러먹다, 그것/그거, 대단히 좋다/기똥차다, 혼나다/경치다, 마구 행동하다/날치다 (입말)  
 b. 상대편/귀측, 상대의 학교/귀교, 편안하다/무고하다, 형/오형, 아버지/부주, 편지를 쓰다/편을 들다 (글말)
- (56) a. 편안하다. 형. 便安-- (주로 묻는 인사말로) 아무 일 없이 무사하다. 어머니께서는 그간 편안하셨습니까?  
 b. 무고하다. 형. 無故-- (주로 편지에서 쓰는 말로) 아무 탈 없이 편안하다. 형수님이랑 조카님들 그 동안 무고하셨는지요?

위 (56)의 ‘편안하다’와 ‘무고하다’는 의미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없다. 그러나 ‘편안하다’는 주로 입말에서, ‘무고하다’는 주로 글말인 ‘편지’의 서두에서 상대의 형편을 물을 때 사용된다. 이러한 문체적 차이는 각 형용사와 결합하는 성분의 변이에서도 볼 수 있다. ‘편안하다’는 시간 부사로 ‘그 동안’의 구어체 변이형인 ‘그간’을 선택하고, ‘무고하다’는 ‘그 동안’을 선택하는 데서

차이를 보인다. 위 (56)의 서술어와 부사어의 결합을 통해서도, 글말은 입말에 비해 더 보수적인 특성을 가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체적 차이를 보이는 또 다른 유형으로는 ‘그렇다/고렇다, 저렇다/조렇다, 이렇다/요렇다’ 등이 있다. 지시형용사들은 사용매체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면서, 그 밖에 ‘작음, 귀여움’의 의미도 추가로 가진다.

### 3.4.3. 사용영역에서의 차이

유의어를 만드는 어휘들은 그것들이 사용되는 영역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데, 사용되는 영역에 따라 일반적인 상황에서 사용되는 일상어와 전문영역에서 사용되는 전문어로 나눌 수 있다. 아래는 일상어와 전문어가 이루는 유의관계를 보여준다.

(57) 피/혈액, 양젯물/가성소다/수산화나트륨, 셋별/금성, 침샘/타선, 췌장/이자, 나병/문둥병/천형병/한센병/대풍창, 감기/독감/돌립감기/유행성독감/인플루엔자, 화류병/성병 ...

일상어와 전문어는 사용영역에 따른 것으로 보기도 하고, 해당어를 누가, 어떤 범위에서 사용하는가를 고려해 사용자 계층과 사용 범위에 따른 유형으로 분류한 논의도 있다. 그러나 실제 사전에서 어디에서부터 전문어로 볼 것 인지는 여전히 문제이다. 아래는 동일한 어휘를 『표준국어대사전』과 『연세 현대한국어사전』에서의 처리가 차이를 보여준다.

- (58) a. 나병 癩病 명. ((의학)) 나균(癩菌)에 의하여 감염되는 만성 전염성 난치병. 피부에 살점이 불거져 나오거나 반점 같은 것이 생기고 그 부분의 지각(知覺)이 마비되며 눈썹이 빠지고 손발이나 얼굴이 변형되며 눈이 잘 보이지 않게 된다.
- b. 문둥병 -病 명. 나병02(癩病).
- c. 한센병 Hansen病 명. ((의학)) 문둥병을 그 병원균을 발견한 한센의 이름을 따서 일컫는 말.

- d. 대풍창 大風瘡 명. ((**한의학**)) 대풍02(大風) [1] <표준>
- (59) a. 나병 癩病 명. 살이 썩어 들어가며 몸의 털이 빠지고 치료가 어려운 피부 전염병.
- b. 문둥병 -病 명. 사람의 살갓, 살, 신경이 고장을 일으켜 굵고 헌데가 생기며 눈썹이 빠지고, 손가락과 얼굴 모양이 찌그러지며 신경이 마비되는 전염병.
- c. 한센병 Hansen病 명. ((**의학**)) 피부의 상처로 감염되어 살이 썩어 들어가고 몸의 털이 빠지는 전염병.
- d. 대풍창 大風瘡 명. ((**의학**)) (주로 한방에서) 문둥병. <연세 현대>

위 (58)은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나병, 한센병, 대풍창’에는 ((**의학**))이는 전문어 표지를 단 반면 ‘문둥병’에는 전문어 표지를 달지 않았다. 반면 동일한 표제어에 대해 『연세 현대한국어사전』에서는 ‘나병, 문둥병’에서는 전문어 표지를 붙이지 않은 반면 ‘한센병, 대풍창’에서는 전문어 표지를 부여하였다. 이러한 근거는 작성자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기본 원칙은 해당 어휘가 출현한 텍스트의 유형이 어떠한가, 그리고 어휘 사용자 집단이 어떠한가에 따른 정보를 통해 전문어 표지를 붙이게 된다. 그러나 최근에 유행한 ‘H1N1’의 경우 위키 백과에 따르면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H1N1 아형(영어: Influenza A virus subtype H1N1) 또는 H1N1은 인플루엔자 A의 아형으로, 사람에게 발병하는 인플루엔자에서 가장 흔한 유형이다. 사람 이외에도 돼지나 새에도 감염·발병할 수 있다.’로 풀이되어 있으며, 전형적인 전문어에 해당된다. 그러나 올 초 ‘H1N1’이 연일 뉴스나 신문 매체를 통해 보도됨에 따라 모든 일반인들도 알 뿐만 아니라 사용하여 마치 일반어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 다시 위 예로 돌아가서 ‘나병, 문둥병, 한센병, 대풍창’을 일반어와 전문어로 나눌 때 그 경계를 어디로 상정할 것인가는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

#### 4. 맺음말

언어교육에서 유의관계는 어휘 확장을 위해 가장 널리 이용되는 방법 중 하나이다. 그러나 유의관계를 이루는 유의어는 의미와 용법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부분에서 유사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어휘 제시

만으로 학습자가 유의어간의 의미 차이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언어 사용자가 유의어의 의미와 용법의 차이를 정확히 알고 변별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어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절하게 사용한다고 할 수 있다. 유의어의 변별과 사용을 위해 유의어의 의미 차이를 정확히 기술한 자료는 교사와 학습자 모두에게 필요한 교육 자료이다. 이를 위해서 실제 언어 자료를 바탕으로 유의어들의 실제 쓰임과 변별적 특징을 토대로 유의어를 변별하기 위한 검증법과 그에 따른 유의어 기술 방법의 정리는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하겠다.

본고는 유의어 변별을 위한 검증법과 기술 방법에 앞서, 유의어의 유형을 어종에 따른 유형과 언어적 특성에 따른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어종에 따른 유형으로는 고유어/고유어 쌍, 고유어/한자어 쌍, 고유어/외래어 쌍, 한자어/한자어 쌍, 한자어/외래어, 외래어/외래어 쌍, 고유어/한자어/외래어 쌍으로 나눌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예가 있는 점과 이러한 유형 분류가 학습자에게 그다지 유용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음도 또한 논의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언어적 특성에 따라 음운론적, 형태론적, 문법적, 화용적 유의어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언어적 특성에 따른 유의어 분류는 유의어의 의미 차이를 기술하기 위한 방법과 연계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음도 논의하였다.

3장에서는 유의어를 변별하기 위한 검증법을 기능부담량을 토대로 살펴보았다. 유의어의 변별을 위한 검증법으로는 교체, 결합, 반의어, 배열 검증법 등이 있는데, 이러한 방법은 모든 품사의 유의어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는 어렵다. 즉 교체 검증은 다양한 품사의 유의어를 변별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반면 배열 검증법은 정도성을 가진 부사류 혹은 접사 파생형용사의 의미 변별에는 유용하지만 다른 품사에는 사용하기 어렵다. 그리고 온도를 나타내는 정도부사 간의 유의성을 변별하기 위해서 교체와 배열, 결합은 사용할 수 있으나 반의어 검증법은 사용할 수 없음을 볼 때 유의어 검증법은 그것이 적용되는 범위에서 동일하지 않음을 논의하였다.

또한 위의 방법에 의해 구분한 유의어의 차이점을 사전에서 기술할 때 모든 품사를 동일한 방식으로 기술하기는 어려운 점을 4장에서 살펴보았다. 구분자나 후행 서술어와의 결합을 통해 명사 유의어 간의 차이를 기술할 수

있으나, 형용사나 동사 혹은 부사에 적용하기는 어려운 반면 화자의 평가 같은 정보는 형용사에는 유용한 방법이나 동사나 부사 등에는 별로 유용하지 않음을 논의하였다. 이렇게 볼 때, 각 품사별로 유의어의 변별 방법을 달리 적용해야 할 것이다. 즉 유의어의 의미를 기술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준 혹은 방법이 각 품사별로 달리 적용되어야 함을 논의하였다.

## 참고문헌

- 강현화(2001), “빈도를 나타내는 시간부사의 어휘 교육 방안 연구”, 『한국어교육』 12·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6-15.
- 김광혜(1987), “국어 유의어사전 편찬을 위한 기초적 연구”, 『국어교육』 61, 한국어교육학회, 183-199.
- 김진식(1991), 「국어 유의어의 생성요인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남경완(2008), 『국어 용언의 의미 분석』, 태학사
- 문금현(2004), “한국어 유의어의 의미 변별과 교육 방안”, 『한국어교육』 15, 국제한국어교육학회, 65-94.
- 봉미경(2005), “시간부사의 어휘 변별 정보 연구-유의어 ‘방금’과 ‘금방’의 분석을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30, 연세대 언어연구교육원, 113-139.
- 봉미경(2005), “국어 형용사 유의관계 유형”, 『언어사실과 관점』 14·15·16,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99-135.
- 안의정·이종희(2008), “국어 사전의 사용적 정보에 관한 연구”, 『어문론총』 48, 한국문학언어학회, 27-60.
- 양명희(2007), “국어사전의 유의어에 대하여”, 『한국어 의미학』 22, 한국어의미학회, 165-184.
- 유현경(2007), “‘사이’, ‘동안’의 어휘 정보 연구”, 『한국어교육』 15, 국제한국어교육학회, 315-335.
- 유현경·강현화(2002), “유사관계 어휘 정보를 활용한 어휘 교육 방안”,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27, 연세대 언어연구교육원, 244-246.
- 유현경·남길임(2009), 『한국어 사전 편찬학 개론』, 도서출판 역락.
- 이진희(2003), “언어의 구어성과 문어성에 관한 연구”, 『독일문학』 85, 한국독어독문학회, 537-.
- 임지룡(1992), 『국어의미론』, 탑출판사.
- 임지룡(1996), “다의어의 인지적 의미 특성”, 『언어학』 18, 229-259.
- 장경현(2003), “문어/문어체·구어/구어체 재정립을 위한 시론”, 『한국어 의미학』 13,

조민정

- 한국어의미학회, 143-165.
- 조남호(2001), “한국어의 어휘”, 『한국어 연수 교재』, 91-98, 국립국어원.
- 차준경(2009), 『국어 명사의 다의 현상 연구』, 제이앤씨.
- 홍종선 외(2009), 『국어사전학 개론』, 제이앤씨.
- Leech, G.(1974), *Semantics*, Harmondsworth, Middlesex: Penguin Books.
- Nida, E.A.(1975), *Componential Analysis of Meaning*, The Hague: Mouton Publishers.
- Ullmann, S.(1957), *The Principle of Semantics*, Glasgow: Jackson and Oxford: Basil Blackwell.

<사전류>

- 국립국어원(편)(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 김민수 · 고영근 · 임홍빈 · 이승재편(1996), 『금성관 국어대사전』, 금성출판사.
- 김광혜(2000), 『비슷한 말 · 반대말 사전』, 도서출판 날말.
- 능률사전편찬연구소(편)(2006), 『능률한영사전』, 능률교육.
- 서상규 외(2006),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 사전』, 신원프라임.
- 신현숙 외(2000), 『현대 한국어 학습사전』, 한국문화사.
- 북한 사회과학원언어학연구소(편)(1988), 『조선말대사전』, 사회과학출판사.
-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편)(1998), 『연세 한국어사전』, 두산동아.
-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편)(2001), 『연세 초등국어사전』, 두산동아.
- 이기문 · 임홍빈(1994), 『참국어사전』, 두산동아.
- 임홍빈(1993), 『한국어사전』, SISA Education.
- 한글학회(편)(1992), 『우리말큰사전』, 한글학회, 어문각.
- Cambridge Advanced Learner's Dictionary*, Cambridge University Press(2003).
- Longman Dictionary of Contemporary English*(2003).
- Merriam-Webster's Dictionary of Synonyms*, Merriam-Webster Incorporated (1984).
- Choose the Right Word*, HarperCollinsPublishers(1994).

조민정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위당관 520호 언어정보연구원  
120-749  
전화 번호: 02-2123-8250  
전자 우편: jeni010@yonsei.ac.kr

Fax: 02-393-5001

원고 접수일: 2010년 10월 30일

학습자 사전에서의 유의어 선정과 기술 방법에 대한 연구

원고 수정일: 2010년 12월 8일

게재 결정일: 2010년 12월 15일



학습자 사전에서의 유의어 선정과 기술 방법에 대한 연구

[www.kci.go.kr](http://www.kci.go.kr)